3부 권위와 자증 — 왜 믿는가

성경론 14편 기적·전통·이성은 어디까지 증거인가 · 변증의 자리

오웬 3장 두 종류의 논증·기적 · 오웬 6장 신적 권위를 굳히는 뒤따르는 고려들 · 워필드 부록 1 성경의 신적 기원 · 프레임 부록 합리성과 성경 · 신앙고백서 1.5 · 신앙고백서 1장 1.5

> ❓ **고고학이 성경을 증명했다는 영상을 봤는데, 그럼 내 믿음도 그런 증거 위에 서 있는 건가요?**

🧭 흐름 한눈에

오웬은 먼저 증거를 '증언에 기대는 것'과 '추론으로 끌어내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진짜 목적이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양심이 설 바탕을 찾는 데 있다고 밝힙니다. 성경은 자기를 받아 달라며 교회도 전통도 기적도 아닌 '영감' 하나만 내세웁니다. 그리스도의 판단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도 기록된 말씀보다 단단한 바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바깥 증거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워필드는 성경의 역사, 66권의 일치, 예언, 가르침이 인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귀납 논증을 펼치고, 오웬 6장도 교리의 효력과 전체의 일치를 '뒤따르는 고려'로 존중합니다. 프레임은 이성이 순종의 일부라서 버릴 수 없지만 중립적인 재판관도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고백서 1.5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증거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풍성히 증명하지만, 온전한 확신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 절별 정리

📜 1. 증거에는 두 종류가 있다 — 그리고 진짜 목적 (오웬 3장)

오웬은 무엇을 확증하든 논증은 두 종류뿐이라고 정리합니다. 하나는 누군가의 증언에 기대는 논증(비인위적 논증)이고, 다른 하나는 근거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논증(인위적 논증)입니다. 성경을 고백하면서 근거를 묻는 사람에게는 성경 자신의 증언을 내밉니다. 그런 사람은 증인의 신용을 이미 인정했으므로 그 증언을 거절하려면 고백부터 거둬야 합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맨 증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이 무엇이며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지, 곧 그 본성과 작용에서 끌어낸 추론을 씁니다. 정직한 증인을 모르는 사람도 그가 말하는 일의 성격과 앞뒤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결국 동의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오웬은 이 두 부류를 상대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가 찾는 것은 우리 양심이 기댈 바탕이고, 그 답은 “성경 안에, 성경 자체로부터”입니다.

1. 논증은 증언형과 추론형 두 가지뿐
2. 고백하는 자에겐 성경의 자기 증언을
3. 불신자에겐 성경의 본성·작용에서 추론을
4. 목적은 논쟁 승리가 아니라 양심의 확신
5. 확신의 바탕은 성경 안, 성경 자체에

> —
> 이 절에서 오웬은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논증의 분류와 목적을 정하는 대목이다

“지금 내 논의는 남의 반론에 답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사람의 반론을 견딜 원리 위에서 그래야 한다.” — 오웬

📜 2. 성경이 내세우는 근거는 영감 하나뿐 (오웬 3장)

오웬은 이사야 8:20에서 출발합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은 [illegible] 시험받습니다. 다른 모든 말을 시험하는 기준이라면 그 기준은

내세울까요? 전통도, 교회의 권위도, 기적도, 사람들의 동의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16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기적 없이 영감만으로 말했고, 당대 교회의 인정을 받은 선지자는 거의 없었습니다(마태복음 23:29, 사도행전 7:52).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을 생사가 걸린 의무로 두셨기에, 말씀 안에 알곡과 겨처럼 구별되는 표지를 주셨습니다(예레미야 23:28-29). 여기에는 중간 길이 없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죄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였고, 의무였다면 그것이 충분히 드러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1. 모든 말은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받는다
2. 기준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 말해야 한다
3. 근거는 전통·교회·기적이 아닌 영감
4. 선지자들은 교회 승인 없이 섰다
5. 거부가 죄면 수용은 의무, 증거는 충분

> **이사야 8:20**
> 교회와 개인의 모든 말을 시험하는 기준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다
>
>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 **디모데후서 3:16**
> ★오웬 3장·프레임 부록이 함께 듦. 오웬에게는 성경이 내세우는 유일한 근거인 '영감'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마태복음 23:29**
> 후대는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지만 당대는 그들을 죽였다. 교회 승인이 믿음의 근거일 수 없다
>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 **사도행전 7:52**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레미야 23:28-29

말씀은 겨 옆의 알곡처럼, 불과 방망이처럼 스스로를 드러낸다

2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2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디모데전서 1:15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 오웬은 장절 없이 헬라어로 인용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면, 받아들이는 것은 의무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의무였다면, 그렇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 오웬

📜 3. 기적도, 하늘의 음성도 기록된 말씀보다 단단하지 않다 (오웬 3장)

누가복음 16:31에서 지옥의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 전하면 형제들이 회개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모세와 선지자, 곧 기록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오웬은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지시는 공정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죽은 성도가 살아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지만(마태복음 27:52-53), 그런 사람의

(베드로후서 1:17-19). 음성은 사탄이나 사람이 꾸밀 수 있으니 결국 말씀에 함께 있는 '신적인 것'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웬이 고고학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논리를 따라가면, 부활 기적도 믿음의 기초가 되지 못하는데 땅에서 나온 유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1. 부자는 기적을,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리킴
2. 말씀을 거절하면 부활에도 안 움직인다
3. 기록된 예언이 하늘 음성보다 '더 확실'
4. 음성은 꾸밀 수 있다 — 결국 '신적인 것'
5. 기록되었다고 신적 표지가 사라지지 않음

> **누가복음 16:31**
> ★오웬 3장·워필드 부록 1이 함께 듦(이 편의 기둥). 기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믿음의 직접 바탕이다
>
>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 **마태복음 27:52-53**
> 가장 큰 기적도 말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비교의 기준
>
> 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 **베드로후서 1:17-19**
> 직접 들은 하늘의 음성보다 기록된 예언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다' (오웬은 1:18-21로 묶어 표기)
>
>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 **베드로후서 1:16**
> “교묘히 만든 이야기”인지 진리인지는 성경 자체가 판가름한다 (오웬은 장절 없이 인용)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더 확실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더 확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내어 주는 데서 더 확실하다는 뜻이다.” — 오웬

📜 4. 개연적 논증의 자리 — 허물지 않되 기초로 삼지 않는다 (오웬 6장)

오웬은 6장 첫머리에서 솔직한 생각을 밝힙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항', 곧 이성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진리입니다. 그런 진리를 '아마 그럴 것이다' 수준의 개연적 논증으로 늘어놓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논증은 기껏해야 '굳은 의견'을 낳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 논증들을 허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한 근거로라도 성경 곁에 머물다가 더 단단한 근거에 발을 딛기 때문입니다. 앞 장들의 자증 논증이 전제된다면 뒤따르는 고려들은 큰 쓸모가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성경 안에 타고난 근거인 교리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에서 이성으로 따져 보는 근거인 성경 전체의 설계입니다.

1. 성경의 권위는 '믿음의 조항'이다
2. 개연적 논증은 '굳은 의견'까지만
3. 그래도 약한 근거를 일부러 허물지 않음
4. 전제는 앞 장의 자증 논증
5. 두 고려: 교리의 성격, 전체의 설계

> —
> 이 절에서 오웬은 구절을 들지 않는다. 논증의 성격과 자리를 정하는 서론이다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믿어야 할 진리를 두고, 개연성에만 이르는 논증을 늘어놓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 오웬

📜 5. 성경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기 — 역사와 열매 (워필드 부록 1)

워필드는 먼저 분명히 합니다. 성경의 신적 기원을 믿는다고 인간 저자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와 자료 수집과 기록의 모든 단계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는 전제 없이 누구나 인정할 사실에서 출발해 귀납으로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결론은 덜 날카로울 수 있지만, 독자의 이성이 모든 단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출발점은 성경의 바깥 역사입니다. 변방 소수 민족의 책이 무력도 권세도 없이 조롱과 박해 속에서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법과 정치와 가정에 스며 선한 열매를 남겼고, 사람들은 그 책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확신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신중합니다. 이 바깥 역사는 초자연적 기원과 잘 맞고, 그 기원에 '정당한 개연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고학 영상이 보여 주는 것도 같은 계열, 곧 성경 바깥에서 들어오는 역사 증거입니다. 다만 워필드가 이 부록에서 고고학을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1. 신적 기원은 인간 저자를 지우지 않는다
2. 전제 없이 누구나 아는 사실에서 출발
3. 무력 없이 박해 속에서 세상에 퍼졌다
4. 망상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다
5. 결론: 초자연적 기원에 '정당한 개연성'

> —
>
> 워필드는 이 대목에서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 확산, 박해, 사회 변화 같은 역사적 사실로 논증한다

"인간은 보잘것없는 헛된 망상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하지 않는다." — 워필드

📜 6. 66권의 일치와 예언 — 한 저자를 가리킨다 (워필드 부록 1 · 오웬 6장)

워필드는 성경이 약 1,500년 동안 30명 넘는 저자가 쓴 66권의 모음집이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흩어진 조각 같지만, 안을 보면 한 교리가 금실처럼 전체를 꿰뚫습니다.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에서 요한계시록의 흰 보좌까지 한 인물의 초상이 이어지고, 앞부분의 예언과 뒷부분의 성취가 전체를 한 묶음으로 동여맵니다. 1,500년을 감독한 사람이 없으니 남는 답은 초인간적 지성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웬 6장도 같은 일치를 두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런 일치는 지혜로운 한 저자를 증명하고, 그 저자는 최고의 선이거나 최고의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행세로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일 텐데, 그토록 거룩한 교리는 마귀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신앙고백서 1.5도 '모든 부분의 일치'를 성경의 논거로 꼽습니다. 세 책이 같은 논거를 드는 셈입니다.

1. 1,500년·30여 저자·66권의 모음집
2. 겉은 조각, 속은 하나의 몸
3. 첫 장부터 끝 장까지 한 분의 초상
4. 예언과 성취가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
5. 저자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 — 답은 하나님

> **창세기 3:15**
>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초상이 성경 첫머리에서 시작된다 (워필드는 장절 없이 암시)
>
>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미가 5:2

그리스도가 태어날 마을을 미리 말한 예언 (암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시편 22:7-18

십자가 위의 고통과 조롱을 미리 그린 본문 (암시)

7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9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11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2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

스가랴 11:12-13 · 마태복음 27:3-10

피값의 예언과 그 성취 (암시)

스가랴 11:12-13 12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마태복음 27:3-10 3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 이르되 내가 무죄한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6]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7]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

누가복음 16:31

★오웬 3장·워필드 부록 1. 워필드는 예언 성취라는 '계속되는 기적'의 무게를 마무리하는 데 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레미야 23:36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웬 6장의 표현과 닿는 구절 (정리본 보충)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성경이 스스로 말하는 그대로라면,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 자체다.” — 오웬

📜 7. 내용이 증거다 — 그리고 다른 설명은 무너졌다 (오웬 6장 · 워필드 부록 1)

오웬 6장의 첫째 고려는 교리의 효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세 질문으로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죄책을 어떻게 씻고 화목할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입니다. 양심과 종교사와 철학이 아무도 이 질문을 풀지 못했음을 증언하는데, 성경은 더 묻을 필요가 없을 만큼 답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

1:18에서 3:21-26까지). 삼위일체처럼 처음엔 이성이 움찔하는 신비도 따져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전체를 떠받친다고 오웬은 말합니다. 워필드도 '교훈의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장엄한 가르침,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양심에 닿는 보편성, 차분하고 정직한 문체, 상징에서 완전한 체계로 나아가는 점진적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끝으로 그는 인간만 원인으로 삼은 설명들, 곧 오해설·신화설·위조설이 모두 무너졌다고 보고합니다. 하나님 없이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계시로 받는 것이 이성적이라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1. 세 질문: 예배, 화목, 참된 복
2. 성경만 끝까지 답한다 — 특히 속죄
3. 처음엔 걸리는 신비가 결국 기둥이 된다
4. 장엄함·보편성·정직한 문체도 증거
5. 오해설·신화설·위조설은 모두 무너졌다

> **로마서 1:18**
>
> 오웬이 직접 지목한 출발점.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
>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로마서 3:21-26**
>
> 오웬이 직접 지목한 절정.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속죄가 죄책 문제에 답한다
>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스스로 찾다가 생각이 허망해졌다. 오웬 6장의 표현과 닿고(정리본 보충), 프레임 부록은 직접 인용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창세기 1:26-27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관의 장엄함' (워필드 암시)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갈라디아서 3:24

구약 예식이 그리스도께 이끄는 몽학선생이었다 (워필드 암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항구에 닻을 내리지 않겠다는 사람은, 감히 그럴 수 있다면 다시 바다로 나가 보라.” — 오웬

📜 8. 이성의 바른 자리 — 성경이 추론을 판단한다 (프레임 부록)

프레임은 이성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추론하는 능력”으로 풀고, 추론은 순종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존슨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지만, 교회 형제 존슨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 의무는 추론으로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비합리주의는 경건해 보여도 실은 불경건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론은 하나님 앞의 책임이라 중립이 아닙니다. 논리는 참과 거짓에 대한 합의를 전제하고, 결론은 전제가 참일 때만

그는 성경의 초점이 구속이라고 해서 그 범위가 갇히지는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구속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과 자연(학문) 해석은 서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석상 이견이 없을 만큼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출처의 판단보다 앞섭니다. 나이라는 '자연의 증거'에도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본보기입니다(로마서 4:18-21).

1. 추론은 순종의 일부 — 버릴 수 없다
2. 그러나 논리도 중립적 재판관이 아니다
3. 성경이 우리의 논리 체계를 판단한다
4. 초점은 구속이지만 범위는 시공간 전체
5. 확실한 성경 가르침이 다른 판단보다 앞섬

> **로마서 4:18-21**
>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확정된 약속이 앞선다. 믿음과 보는 것을 가르는 원칙
>
>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골로새서 1:20**
> 구속은 만물에 미친다. 성경의 초점이 범위를 가두지 않는다
>
>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 **로마서 8:18-22**
> 타락과 구속은 온 피조물에 걸친 일이다
>
>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말미암음이라 [21]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3:16

★오웬 3장·프레임 부록. 프레임에게는 개별 구절의 초점이 성경 전체의 목적과 맞아야 한다는 근거(역할이 다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사야 55:8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추론의 한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1:33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모순처럼 보이면 한 걸음 물러설 이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논리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 프레임

📜 9. 증거는 버팀목, 확신은 성령께서 (오웬 6장 · 신앙고백서 1.5)

오웬은 6장을 서론의 원칙으로 맺습니다. 교리의 효력이나 전체의 일치 같은 고려들은 믿음의 기초가 결코 아닙니다. 기초는 앞 장들에서 말한 성경 자체의 빛과

증언에 감동되고 이끌려 성경을 높이 존중하게 될 수 있다.” 이어 내용의 천상성, 교리의 효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일치, 전체의 목적, 구원의 유일한 길을 온전히 드러냄을 들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히 증명하는 논증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확신과 확증은”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전통(교회의 증언)은 존중으로 이끌고, 증거는 풍성히 증명하지만, 확신의 자리는 성령께 있습니다.

1. 바깥 고려들은 믿음의 기초가 아니다
2. 기초는 성경 자체의 빛과 능력
3. 시련의 때에는 귀한 버팀목
4. 교회 증언 → 존중, 논증들 → 풍성한 증명
5. 온전한 확신 → 성령의 내적 사역

> —
>
> 신앙고백서 1.5의 원래 증거 구절은 이 편 재료에 없다. 원본과 대조한 뒤 채울 것

> **베드로후서 1:19**
>
> (오웬 3장에서) 확신은 체험이나 기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위에 선다
>
>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고려들은 우리 믿음의 바닥과 기초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서, 시련과 유혹의 때에 버팀이 된다.” — 오웬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오웬 3·6장	바깥 증거는 쓸모 있고 허물 필요도 없지만 믿음의 기초는 아니다. 부활 기적조차 기록된 말씀보다 단단하지 않다.	성경이 내세우는 근거는 영감 하나,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 증거는 버팀목	구체적인 역사·문헌 증거는 다루지 않음 — 워필드가 메운다. 정리본상 6장의 '보존·전파' 논의는 확인되지 않음
워필드 부록 1	성경의 역사·구조·예언·가르침은 인간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니 성경을 계시로 받는 것이 이성적이다.	전제 없는 귀납, 믿지 않는 친구도 따라올 수 있는 근거, '정당한 개연성'	이 부록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다루지 않음 — 오웬·신앙고백서가 메운다. 영감의 범위는 본론으로 미룸
바빙크	이 편 재료에 바빙크 정리본이 없어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 — 오웬과 신앙고백서가 메운다.	—	다른 정리본들은 바빙크가 증거를 믿음의 근거가 아닌 '뒤따르는 것'으로 본다고 '알려져 있다'고만 적음(원문 확인 필요)
프레임 부록	증거를 따지는 추론은 순종이라 버릴 수 없다. 그러나 논리도 학문도 중립이 아니므로 확실한 성경 가르침이 다른 판단보다 앞선다.	성경이 추론의 규범, 해석의 상호 교정과 성경의 우위, 아브라함 원칙	바깥 증거의 목록은 없음 — 워필드가 메운다. 기적과 말씀의 비교는 없음 — 오웬이 메운다
신앙고백서 1.5	교회 증언과 성경의 여러 탁월함이 하나님 말씀임을 풍성히 증명한다. 그러나 온전한 확신은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한 마디	각 논증을 풀어 설명하지 않음 — 오웬 6장과 워필드가 풀어 준다

- 신앙고백서 1.5가 뼈대를 놓습니다. 증거는 '풍성히 증명'하지만, 확신은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옵니다.

- 워필드는 증거를 가장 넓고 적극적으로 펼치지만 이 부록에서 성령의 증거는 비워 둡니다. 그 자리는 오웬 3장(기적보다 말씀)과 6장 맺음(증거는 버팀목)이 채웁니다.
- 프레임은 '이성을 어디에 둘까'라는 방법의 빈자리를 메웁니다. 증거를 따지는 일 자체는 순종이지만, 그 저울은 성경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 결국 다섯 목소리는 이렇게 모입니다. 증거는 반갑게 쓰되, 믿음을 그 위에 세우지는 않는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공통)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자증성(공통)
성경이 다른 보증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는 성질.

성령의 내적 증거(공통)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증언하셔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온전히 확신하게 하시는 일.

충족성(공통)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믿음·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담고 있다는 성질.

증언 논증 / 추론 논증
증언 논증은 누군가 증언했다는 사실에 기대는 논증(오웬의 '비인위적 논증')이고, 추론 논증은 근거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논증(오웬의 '인위적 논증')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까지 보여 주는 논증. 오웬은 이것이 '굳은 의견'을 낳을 뿐 믿음의 기초는 되지 못한다고 본다.

뒤따르는 고려
믿음의 기초가 놓인 뒤에 그 믿음을 굳혀 주는 보조 논증.

귀납
여러 사실을 모아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 워필드가 이 부록에서 쓴 방법이다.

신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보게 하는 신적 성질(오웬).

변증
믿음의 근거를 설명하고 반론에 답하는 일.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바깥 증거(역사, 고고학, 일치, 예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풍성히 보여 주는 귀한 논거이고,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 그러나 그런 논증은 개연적이어서 믿음의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부활 기적조차 기록된 말씀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 이성은 순종의 일부라 따지는 일 자체는 옳지만, 저울을 쥔 것은 성경입니다. 학문과 부딪쳐 보일 때도 확실한 성경 가르침이 앞섭니다.
- 증거는 시련의 때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입니다. 온전한 확신은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오웬 · 6장 신적 권위를 굳히는 뒤따르는 고려들
- 워필드 · 부록 1 성경의 신적 기원
- 프레임 · 합리성과 성경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